

핵심사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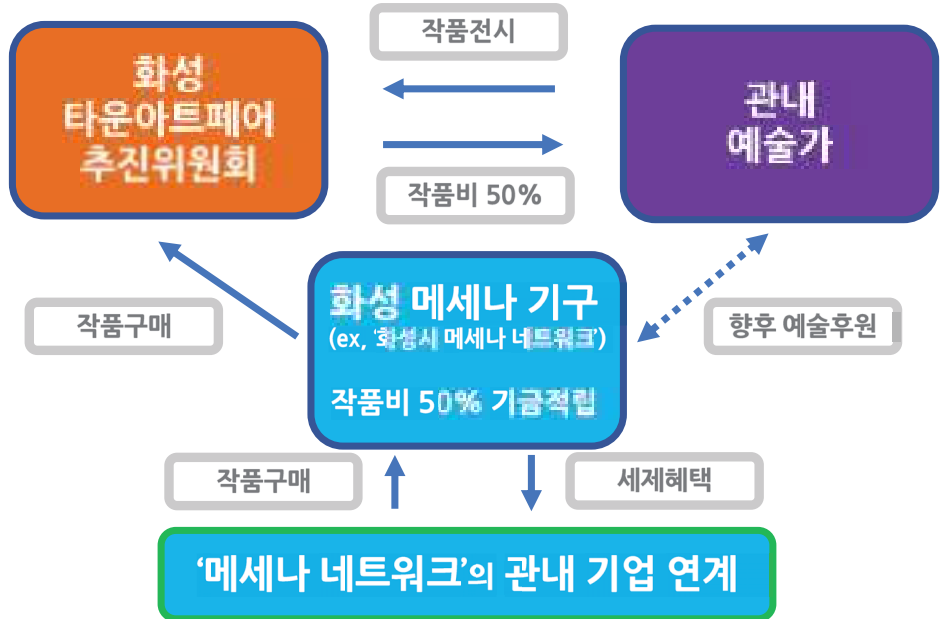
'화성 타운아트페어'를 통한 문화자치 기금 조성

<문화자치 기금>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미술품 구입 1,000만원 한도'를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인정

또한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추가 20%'를 미술품구입으로 인정하여 세금에서 공제 (ex, 일반접대비 규모가 1억인 기업은 20%(2천만원)를 추가해서 문화접대비로 공제가능)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기업이 구매, 50%는 작가에게, 50%는 기금으로 적립하여 예술후원으로 재사용



핵심사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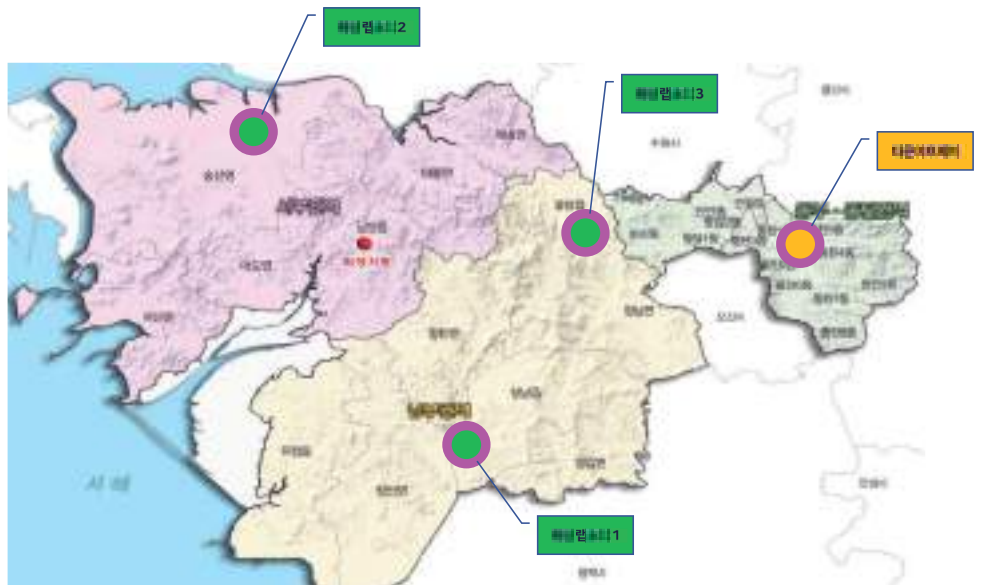
'화성 랩소디'를 통한 문화자치 기금 조성

<'화성랩소디' 뮤지컬>

2023년에 '화성의 노래' 3곡과 '화성 이야기' 뮤직비디오 3편을 시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워크숍을 통해 창작하여 탄생

2024년에 '화성의 노래와 이야기'를 한편의 뮤지컬로 엮어 시민배우와 예술가들이 함께 '유료 뮤지컬 공연'을 무대에 올림

뮤지컬 '우리는 화성인'(가제)은 시민들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와 '유료 티켓판매금'을 통해 문화자치 기금으로 연계



이미지 출처 : 화성시, 2019,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총괄보고서」, p179. 변형활용.

핵심사업 3

기업과 예술의 만남, Matching-Grant 사업



<기업과 예술의 만남>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간의 결연을 통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

기업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화성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Matching-Grant

기업이 공공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할 경우, 화성시가 그 금액에 비례하여 추가로 매칭

향후 '화성 문화자치 기금'을 적립, 화성 메세나 기구 Matching-Grant

이미지 출처 : 경남메세나협회 Art & Business, www.gnmecenat.or.kr

핵심사업 4

<ESG + 메세나> 활동의 촉진

문화예술을 통한
선진적인
ESG경영 실천

메세나는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ESG경영에 유용한
필수 전략입니다.



ESG+ 메세나

ESG 경영에 메세나가 필요한 10가지 이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01. 메세나는 예술을 통해 공헌체제 인식도를 고취시킨다.

02. 메세나는 ESG 실천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한다.

03. 메세나는 이해관계자 소통과 나눔에 도움을 준다.

04. 메세나는 노동과 삶의 균형 보장에 기여한다.

05. 메세나는 근로자 안전 증진 및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준다.

06. 메세나는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07. 메세나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이익을 증대시킨다.

08. 메세나는 공급망 협력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09. 메세나는 시민 메시지를 확대한다.

10. 메세나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사회책임 의식에 협력한다.

이미지 출처 : 한국메세나협회 소개자료, www.mecenat.or.kr

핵심사업 5

청년을 위한 '아트화성 펠로우십 임팩트'

예술적 상상과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트화성
펠로우십 임팩트

화성의
청년,
월 300만원
2년간 지원



예술과 기술부문
청년 선정

아트테크
Art Tech
미래도시
화성

'예술과 기술로 삶이 풍요로운 도시'(아트화성)

핵심사업 6

문화예술 공간 자립지원 기금 [공간자립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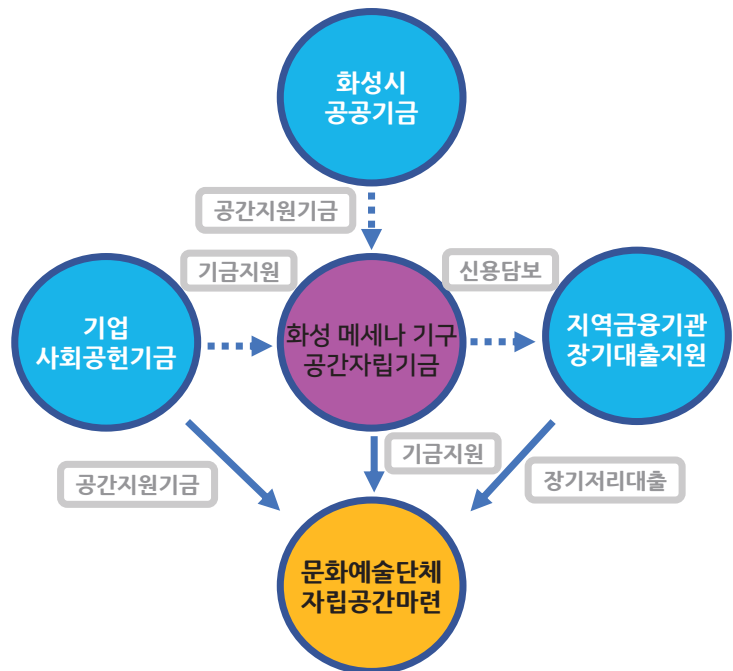
<공간자립기금>

문화예술단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활동공간의 불안정성

매달 나가는 임대료에 대한 해결책
없이 문화자치 활동은 어려움.
"어떻게 안정적인 공간마련을 할까?"

문화단체는 장기저리대출을 통해
단체소유의 공간을 확보하고
임대료 대신 대출금을 갚는 방안

화성 메세나 기구는 공간자립기금을
만들고, 자립지원 프로젝트 운영



<화성 메세나대상 시상식>

매년 '아트화성'(예술과 기술로
살이 풍요로운 도시)에 기여한
최고의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메세나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화성시와 경기도에서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 대외 홍보

'대상' 외에 '메세나인상'을 통해
메세나를 위해 노력한 개인
(시민, 공무원, 기업인 등)도 시상
을 통해 '화성메세나 운동' 확산



예술 + 비즈니스 파트너십 어워드

파워해서 예술과 협력하는 최고의 기업

Americans for the Arts/아트와 비즈니스 파트너십 어워드 - 예술과 상호 협력의 최고 혁신기업에 최우선적 지원
을 통해 한국 아트와 비즈니스의 국경을 뛰어넘는다. 가장 많은 기업들이 BCA/아트와 비즈니스 파트너십 어워드 수상
기업은 Daniel Rosenberg, partnership awards 수상기업이다. 수상하는 개인 + 기업은 예술과 비즈니스를 통해
인간의 삶과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출처 : BCA(Business Committee for the Arts) : www.americansforthearts.org

감사합니다

박승현

parktutor@naver.com

제 2 장. 문화자치 기금과 네트워크 추진

2. 문화자치 기금 조성방안

2023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화성시 메세나 모임'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23. 8. 14 (월) 오후 3시 /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유공간

● 참 석

송인현(민들레연극마을 예술감독), 박석윤(창문아트센터 센터장),
김미자(화성미협 협회장), 최범용(한국미술협회 이사),
이효정(전 화성시 소장인 정책자문관), 오현정(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임승관(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김수나(라이프로그 기금개발 매니저)
박승현('2023 화성시 문화자치' 총괄기획가)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정책기획팀(유영임 팀장, 이민경 차장)

● 안 건

- '화성시 메세나 모임 1차 회의록' 회람 및 검토
 - '화성시 메세나 모임 1차 회의록'(별첨 1)
- '문화자치 기금' 조성 방향 검토
 - '문화자치 기금' 조성 방안(별첨 2)
- '문화자치 기금조성 액션플랜 개발을 위한 포럼 및 워크숍' 기획(안) 검토
 - '포럼 및 워크숍 기획(안)'(별첨 3)

● 진 행

개회	3:00-3:05	참석자 인사나눔	
경과공유	3:05-3:10	2023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화성시문화재단
발제	3:10-3:30	'문화자치 기금' 조성 방안 및 1차 포럼 기획(안)	박승현
안건협의	3:30-5:00	안건 의제	참석자 전원

별첨 1

< 화성시 메세나 모임 1차 회의록 >

▶ 경과공유

- ‘2023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 ‘문화자치 기금조성 액션플랜 개발 및 워크숍’

– 3회(8월말, 9월말, 10월말)의 포럼 및 1회(11월)의 집중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음

– 아직 포럼을 공고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 발제

- ※ ‘메세나 도시와 조례’ 참조(‘화성시 메세나 모임 1차 회의’ 별첨2 자료)

▶ 안건 논의 사항(쟁점 및 토론 결과의 정리)

• 화성시 메세나의 방향

– 오늘 회의가 열린 ‘화성시 메세나 모임’(가칭)과 ‘문화자치 시민협의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오늘 열린 ‘화성시 메세나 모임’(가칭)은 ‘문화자치 시민협의체’와는 ‘상호 협력하는 전혀 별개의 모임’이다. ‘문화자치 시민협의체’는 화성시문화재단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화자치 시민협의체’를 화성시문화재단에 두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자치’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화성시 메세나 모임’(가칭)은 ‘자치’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문화자치 시민협의체’와 협력할 것이다.

–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성 메세나’ 사업(‘HWASEONG MECENAT 2023’)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전국에 있는 6개의 ‘메세나협회’ 중 대구의 사례는, 문화재단(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메세나협의회)과 대구메세나협회라는 2개의 조직이 협력하는 구조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메세나협의회’는 공공이 주도하고 있고, ‘대구메세나협회’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하며 메세나 활동을 지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다. 화성시도 이 모델과 같이, 화성시문화재단(공공)에서 추진하는 메세나 사업과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화성시 메세나 모임’이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면 화성시의 메세나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 메세나 기금을 만들면, 기존의 문화예술기금을 축소하는 명분이 되지는 않을

까? 그렇다면 공공기금과 민간기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모든 기금은 공공기금과 민간기금이 있다. 우리의 경우 예전에 지자체 마다 ‘문화예술기금’을 만든 것이나(지금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하여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축소지침이 내려와 있다), 화성의 경우 전국에서 제일 많은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기금’으로 600억을 만든 것 등이 공공기금이다. 하지만 공공기금은 민간이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 공모지원사업과 똑같이 지원받으면 여타 지원금과 같은 기준으로 정산과 결과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므로, 사실상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기재부와 행안부가 ‘문화예술기금 축소지침’을 내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기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금과 민간기금이 상호 협력하는 방식이 활성화되어 있다. 즉, 민간기금에서 1억을 모으면, 공공기금에서 1억을 매칭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공기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 한다. 결국 민간기금이 활성화되면 공공기금은 본래의 자기 기능을 더욱 활발히 해나갈 수 있으므로, 민간기금이 활성화되는 것이 공공기금도 활성화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 화성시 메세나 조례의 추진

- 조례의 추진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 ‘화성시 메세나 운동’의 핵심적인 주체는 민간이 되어야 하듯이, 그 운동의 제도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역시 민간이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만, 조례의 제정 등 제도적 절차와 행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향후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화성시 메세나 모임’이 민간 차원에서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론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화성시의회와 화성시 등과 민관협력을 적극 해나가도록 하자.

- 조례를 추진하는 이유가 결국 메세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고, 그러려면 기업의 참여가 핵심일텐데 그 방안은?

→ 그동안 기업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기업이 지역에 후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접근이 많았다. 그래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른바 ‘윈윈(Win-Win) 전략’이 되지 않으면 기업은 후원에 참여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활동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됐다. 그 상징적인 표현이 ‘탄소세’다. 2023년 6월 13일 발표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이행법(초안)’에 의하면,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포스코’는 연 6조의 탄소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걸 피하려면 기업은 ‘ESG 경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Environment 환경), S(Social 사회), G(Governance 지배구조)는 각각의 지표가 있고, 문화예술과 가장 많이 연계된 분야는 S(사회)다. S의 지표에는 ‘전략적 사회공헌’이 있고, 그 분야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문화분야’다.('K-ESG 가이드라인 v1.0') 즉, 메세나 활동은 오히려

기업의 ESG 경영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기업에서 찾고 있는 ESG의 구체적 실천을 지역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 ESG의 환경이 새로운 계기를 줄 수 있다 해도, 기업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업의 입장에서 ‘탄소세’ 또는 ‘ESG 경영’이 제도로부터 비롯된 것인 바와 같이, 화성시에서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별첨1 ‘화성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조세의 감면)과 같이, 메세나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접근과 동시에 화성시의 서부, 남부, 동부의 각 기업이 자신의 지역에 혜택을 주고, 그 지역 시민과 예술가들이 ‘전략적 사회공헌’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지역별 기업협력 시스템’도 중요하다.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준)’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가 필요한가?

→ 그동안 화성에서는 다양한 메세나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상호 연결되지 못하고 단발적으로 시도하다 지속되지 못했다. 지금 하려는 것은 화성에 ‘지속가능한 메세나 시스템’을 정착시켜 보자는 것이다. 7년 정도의 중기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 1년 정도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방식이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민간주도적인 추진체가 튼튼히 있어야 하고,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는 민간주도적인 추진체로서 폭을 넓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 ‘화성시 메세나 모임’의 역할은 무엇인가?

→ ‘화성시 메세나 모임’은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위한 사전 모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화성시 메세나의 방향’, ‘화성시 메세나 조례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검토하여 향후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추진될 계획인 ‘포럼’ 또한 ‘화성시 메세나 모임’에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회의 이후로는 ‘화성시 메세나 모임’(가칭)에서 ‘가칭’을 빼고 ‘화성시 메세나 모임’으로 ‘모임 이름’을 정하기로 한다.

- 향후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준)’의 추진 일정은?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준)’는 차분히 ‘화성시 메세나 모임’을 통해 방향 및 활동계획 등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8월초에 ‘제2차 화성시 메세나 모임’에서는 오늘 일정상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연락드려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공유드리고 향후 검토할 안건에 대하여 협의드리기로 하자.

< 문화자치 기금조성 액션플랜 개발을 위한 포럼 및 워크숍 기획(안) >

문화자치 기금조성 액션플랜 개발을 위한 포럼 및 워크숍(안)		
● 기금조성 교육훈련 총괄 : 임승관(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 기금조성 교육훈련 진행 : 김수나(라이프로그 기금개발 매니저)		
회 차	내 용	
1차 포럼	제 목	<ESG+메세나>와 문화자치 기금
	발 제	● 김효근(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손예령(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연구교수)
		● 화성시 메세나 모임
	일시 및 장소	9월 7일(목) 3시 / 장소 미정
2차 포럼	제 목	기금개발 방안 및 기업의 참여 방안
	발 제	● 이상진(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이사)
		● 강충호(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 화성시 메세나 모임
	일시 및 장소	10월 5일(목) 3시 / 장소 미정
3차 포럼	제 목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법률과 제도적 방안
	발 제	● 김성규(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수환(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 화성시 메세나 모임
	일시 및 장소	11월 2일(목) 3시 / 장소 미정
통합워크숍	제 목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의 기금조성 실천방향
	워크숍 방식	● 화성시 문화자치 기금조성 액션플랜 통합워크숍
	일시 및 장소	12월 7일(목) 3시 / 장소 미정

문화자치 기금 조성방안

기금(基金)이란 무엇인가?

어떤 목적이나 사업, 행사 따위에 쓸 기본적인 자금. 또는 기초가 되는 자금.

기금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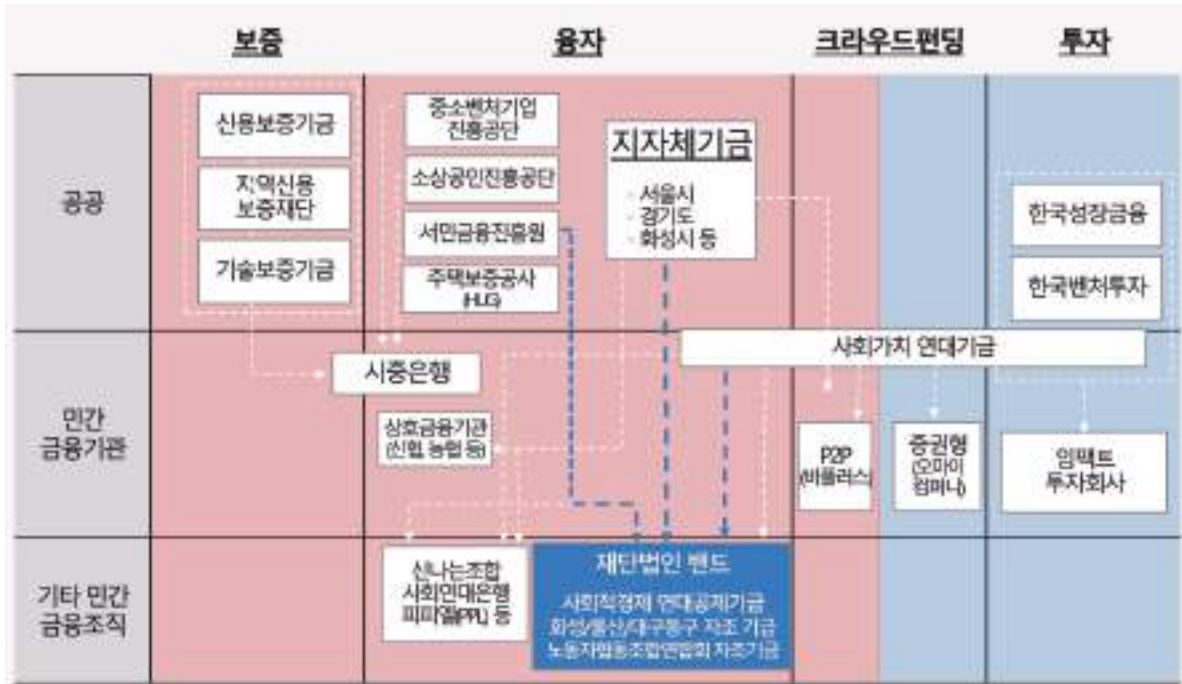
공공 기금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법률로서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금.

민간 기금

민간에서 어떤 목적이나 사업 따위에 쓰기 위해 조성하여 운용하는 자금.

공공기금과 민간기금의 사례



출처 : ㈜한국사회혁신금융 /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소개(재단법인 밴드), 2020년.

공공기금 사례 : 사회투자기금

구분	구분	기금명	설치년도	기금규모*	비고
광역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2012	880억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2016	250억	
	세종시	사회투자기금	2018	10억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2019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2020	-	5년간 60억 조성 예정
기초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2020	-	5년간 150억 조성 예정
	서울 성동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4	7.5억	
	서울 성북	사회투자기금	2015	14억	
	서울 은평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5	36.5억	
	서울 강동	사회적경제투자기금	2016	3억	
	경기 성남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010	20억	
	경기 화성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14	600억	
	전북 완주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011	11억	
	전북 전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9	8억	

▲ 5개 광역 지자체, 6개 기초 지자체에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2020년말 기준 지자체 편입의 기준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하고 있다. *순정국사회투자기금

사회투자기금이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자금 말한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업유형별 현황 (단위: 원)
※ 2015년 6월말 현재. 자료: 한국사회투자



공공기금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법률로 설치되는 특정 자금이다.

사회투자기금의 법률적 근거

구분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 별도 제정	6	2	(광역) 서울, 경기, 충남, 세종, 전북, 경남 (기초) 서울-성동, 경기-화성
사회적경제 조례 내 기금설치 근거 마련	5	39	(광역) 충북, 전남, 광주, 대구, 울산 (기초) 서울-성북, 서울-은평, 서울-강동, 경기-성남, 전북-전주, 전북-완주 등
소계	11	4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12. 31.] [경기도조례 제6838호, 2020. 12. 31., 일부개정]

□ 제3조(기금의 조성) 경기도 사회
1. 경기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12개 광역, 41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로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민간기금 사례 :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 가치 창출 모델

사회 혁신 주체들의 소셜 임팩트가 확대·지속되는 것을 목표로 누구에게나 열린 임팩트 기금과 플랫폼을 조성 및 운영합니다.
전문적인 임팩트 금융과 관계금융 서비스를 다하여 개별 비즈니스가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게끔 지원합니다.



소개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민간 주도로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T. 02-2088-

공공기금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의 예산회계법을 알아야 한다.

예산회계법

1962년 1월 1일 제정. (2006년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재정법'을 제정)

제7조(기금의 설치)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ex,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기금)

제8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국가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회계구분)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별법에 의해 설치한다. (ex,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한국의 시민사회는 '보조금'에 주로 의존 해왔다.

'보조금'이란 무엇인가?

보조금 subsid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사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 subsidy 어원은 아래에(sub) 앉은(sit) [명사겸미사] (y) : (국가업무)를 실행해주는 하위단위를 의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보조금법')

1963년 11월 1일 제정

제2조(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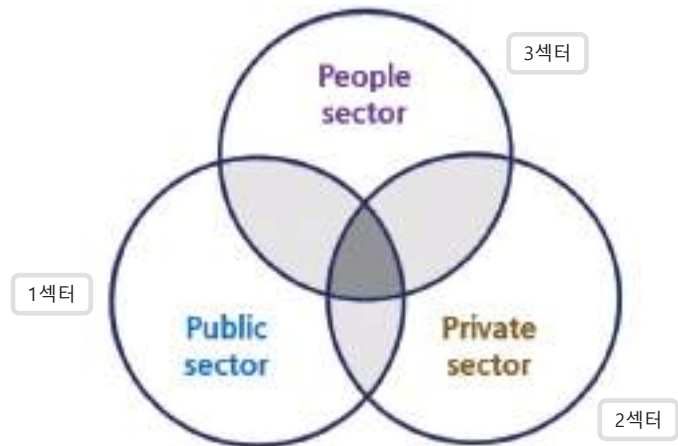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교부하는 돈.

'보조금법'에서, '기금' 조차 "보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교부하는 돈으로 정의하면서, 일반회계와 다른 기금 본연의 운용방식을 정립 못함.

진정한 문화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경제자립기반이 있어야 함

PPPP(4P)
Public-Private-People-Partnership
(공공-기업-시민의 파트너십)

시민과 기업이 함께 주체로 나서고
화성시가 공공의 역할로 제도를 만들어
“예술과 기술로 삶이 풍요로운 도시”
(아트화성)를 위한
문화자치의 실천모델을 창조해 나감



감사합니다

박승현
parktutor@naver.com

제 2 장. 문화자치 기금과 네트워크 추진

3. ‘화성 메세나 네트워크’(가칭)와 30개 아젠더

2023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화성시 메세나 모임' 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23. 9. 6 (수) 오후 3시 30분 / 화성마을사랑방(향남읍 평3길 9)

● 참 석

송인현(민들레연극마을 예술감독), 박석윤(창문아트센터 센터장),
김미자(화성미협 협회장), 최범용(한국미술협회 이사),
이효정(전 화성시 소장인 정책자문관), 오현정(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임승관(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박승현('2023 화성시 문화자치' 총괄기획가)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정책기획팀(유영임 팀장, 이민경 차장)

● 안 건

- '화성시 메세나 모임 2차 회의록' 회람 및 검토
 - '화성시 메세나 모임 2차 회의록'(별첨 1)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추진 방안 검토
 - '문화자치 기금조성 액션플랜 개발 및 워크숍(안)'(별첨 2)

● 진 행

개회	3:30-3:35	참석자 인사나눔	
경과공유	3:35-3:40	2023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화성시문화재단
발제	3:40-3:50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추진 방안(안)	박승현
안전협의	3:50-5:30	안전 의제	참석자 전원

별첨 1

< 화성시 메세나 모임 2차 회의록 >

▶ ‘화성시 메세나 모임 1차 회의록’ 회람 및 검토

- 이견 없음

▶ 발제

- ※ ‘문화자치 기금 조성방안’ 참조(‘화성시 메세나 모임 2차 회의’ 별첨2 자료)

▶ 안건 논의 사항(쟁점 및 토론 결과의 정리)

-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화성시 메세나의 방향’은 공감한다. 문제는 실행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이다.

→ ‘화성시 메세나 모임’에서 그 실행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자.

- 실무자가 따로 있지 않으면 논의만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다. 실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경기 문화자치 사업’을 통해 화성에 ‘지속가능한 메세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문화자치 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경기 문화자치 사업’을 통해 3년 지원을 확보하였으니, 올해를 포함하여 2년 동안 전문가가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내고, 3년째에 지역의 실무진들과 함께 안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4년차부터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실행체계가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 7년차에는 문화자치 기금을 통한 자립적인 기반의 형성과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보자.

- ‘화성시 메세나의 방향’에서 거대담론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다. 당위성은 이해하는데, 대상이 구체화되어야 실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그렇다.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는 큰 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큰 방향이 구체적인 실천지침과 연결되지 않으면 실행 가능성이 낮아진다. 1차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화성시 메세나 모임’은 민간주도적인 원칙을 가지고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를 통해 폭을 넓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핵심 대상은 기업이다. 기업 중에서도 화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을 어떻게 참여토록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공공(행정)과의 협력은 필수다.

- 이제 큰 방향은 잡았으니,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작업으로 들어가자.

→ 3차 회의를 9월 6일에 하기로 하고,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자.

별첨 2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추진 방안(안) >

문화자치 기금조성 액션플랜 개발을 위한 포럼 및 워크숍(안)			
● 기금조성 교육훈련 총괄 : 임승관(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 기금조성 교육훈련 진행 : 김수나(라이프로그 기금개발 매니저)			
제 목	개 요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준비를 위한 1차 워크숍	제 목		<ESG+메세나>와 문화자치 기금
	내용	발제	● 손예령(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연구교수)
		워크숍	● 화성시 <ESG+메세나> 방안
	일시 및 장소		10월 5일(목) 3시 / 장소 미정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준비를 위한 2차 워크숍	제 목		<ESG+메세나>와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내용	발제	● 강충호(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워크숍	● 화성시 메세나도시 창출 방안
	일시 및 장소		10월 26일(목) 3시 / 장소 미정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준비를 위한 3차 워크숍	제 목		‘ESG메세나도시’와 ‘문화자치 기금 네트워크’
	내용	발제	● 박승현(화성시 문화자치 총괄기획가)
		워크숍	● 화성시 문화자치 기금조성 액션플랜 방안
	일시 및 장소		11월 16일(목) 3시 / 장소 미정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창립 포럼	제 목		화성시 ESG메세나도시 포럼
	내용	네트워크 창립총회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창립총회
		네트워크 창립식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창립선언
		학술 심포지엄	● 김효근(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종합토론 : 화성시 ESG메세나도시 방향
	일시 및 장소		12월 5일(화) 4시 / 장소 미정

1, 2, 3차의 워크숍과 30개 아젠더

분 류	개 요		
1차 현장 워크숍	제 목		화성시 <ESG+메세나> 방안
	내용 		

분 류	개 요				
2차 현장 워크숍	제 목		<ESG+메세나>와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내용	발제	강충호(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의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무엇인가? ●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26000>이란 무엇인가? ● 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 ● ESG 경영과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의 관계 ●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과 문화예술 ● ‘K-ESG’ 가이드라인과 사회(Social) 지표 ● ‘K-ESG’ 사회 지표 중 ‘전략적 사회공헌’ ● ‘전략적 사회공헌’과 문화예술의 실천 활동 ● 화성시의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일시 및 장소		10월 26일(목) 3시 / 장소 : 동탄복합문화센터

분 류	개 요		
3차 현장 워크숍	제 목		‘ESG메세나도시’와 ‘문화자치 기금 네트워크’
	내용	발제	박승현(비움주식회사 대표이사)
		의제	● 기금의 종류와 공공기금/민간기금의 이해
			● 문화자치를 위해서는 왜 자립적 기반이 필요한가?
			● <ESG메세나도시>란 무엇인가?
			●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문화21 실천’
			● 사회, 경제, 환경 + 문화의 네가지 기둥
			● ESG 경영에 메세나가 필요한 10가지 이유
			● 메세나도시의 개념과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
			● 메세나도시 1, 2, 3 유형과 해외의 실천사례
			● 화성시의 문화자치 기금 네트워크 추진방안
			● 화성시의 <ESG메세나도시>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일시 및 장소		11월 16일(목) 3시 / 장소 : 동탄복합문화센터

제 3 장. 화성ESG메세나(준)와 ESG메세나도시

1. ESG 경영에 메세나가 필요한 10가지 이유

2023 경기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준비위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23. 9. 18 (월) 오후 2시 /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유공간

● 참 석

송인현(민들레연극마을 예술감독), 박석윤(창문아트센터 센터장),
신사임(화성음협 협회장), 김미자(화성미협 협회장),
이효정(전 화성시 소장인 정책자문관), 오현정(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임승관(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이미림(브랜드숲 이사)
박승현(‘2023 화성시 문화자치’ 총괄기획가)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정책기획팀(유영임 팀장, 조용성 대리)

● 안 건

- ‘화성시 메세나 모임 3차 회의록’ 회람 및 검토
 - ‘화성시 메세나 모임 3차 회의록’(별첨 1)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추진 방안 검토
 - ‘문화자치 기금조성 액션플랜 개발 및 워크숍(안)’(별첨 2)
 - ‘<화성시ESG메세나도시포럼> 회칙(안)’(별첨 3)
 - ‘<화성시ESG메세나도시포럼> 주요 개념(안)’(별첨 4)
 - ‘<화성시ESG메세나도시포럼> 조직도(안)’(별첨 5)

● 진 행

개회	2:00-2:05	참석자 인사나눔	
경과공유	2:05-2:10	2023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화성시문화재단
발제	2:10-2:20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추진 방안(안)	박승현
안건협의	2:20-4:00	안건 의제	참석자 전원

별첨 1

< 화성시 메세나 모임 3차 회의록 >

▶ ‘화성시 메세나 모임 2차 회의록’ 회람 및 검토

– 이견 없음

▶ 발제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 추진방안’ 참조(‘화성시 메세나 모임 2차 회의’ 별첨2 자료)

▶ 안건 논의 사항(쟁점 및 토론 결과의 정리)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논의를 시작하자.

→ 지난 ‘화성시 메세나 모임 1차 회의’에서 논의한대로 우선 민간주도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구심체가 있어야 기업 및 공공 등과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 오늘로서 ‘화성시 메세나 모임’이 3차에 걸친 회의를 준비해 왔으니, 다음 차에서는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준비위원회 1차 회의’부터 시작하여, 12월 초에 창립총회 및 창립식을 갖도록 하자.

– 12월 초에 네트워크 창립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네트워크의 방향정립을 위한 충분한 논의, 함께 하실 분들의 추천 등 어떤 수순으로 할 것인가?

→ 3차례의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통해 <ESG+메세나>의 전문가를 모시고 화성시 네트워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의제도출을 해보자. 3주 간격으로 두달 간 3번의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워크숍에 함께 할 분들을 적극 추천하여 참석토록 하여, 네트워크의 취지와 방향을 함께 만들고 조직을 확대·구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의 공동대표는 문화예술계, 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층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모시는게 바람직하다. 어떤 분들이 좋은가?

→ 우선, 이 논의가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되었고 이미 3차례의 ‘화성시 메세나 준비모임’이 진행된 바 있으니 문화예술계에서 준비위원장을 맡아 책임성 있게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 (준비위원장으로 몇 분이 추천되어 의논함) 그럼 그동안 꾸준히 메세나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오신 송인현 예술감독님을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참석자 모두의 동의로 결정) 한다. 향후 기업계(기업대표 등)와 학계(대학총장 등) 등 민간에서 널리 신망 있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추천하자.

– 다음 차 회의인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의 창립에 필요한 회칙과 조직도 초안 검토 등 창립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9월 18일(월) 2시에 봉담에서 회의하기로 하자.

별첨 2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추진 방안(안) >

문화자치 기금조성 액션플랜 개발을 위한 포럼 및 워크숍(안)				
● 기금조성 교육훈련 총괄 : 임승관(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 기금조성 교육훈련 진행 : 이미림(브랜드숲 이사)				
제 목		개 요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준비를 위한 1차 워크숍	제 목		화성시 <ESG+메세나> 방안	
	내용	발제	● 손예령(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연구교수)	
		워크숍	● ESG 시대, 기업시민과 문화예술	
	일시 및 장소		10월 4일(수) 3시 / 유엔아이센터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준비를 위한 2차 워크숍	제 목		<ESG+메세나>와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내용	발제	● 강충호(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워크숍	● 화성시 메세나도시 창출 방안	
	일시 및 장소		10월 26일(목) 3시 /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준비를 위한 3차 워크숍	제 목		‘ESG메세나도시’와 ‘문화자치 기금 네트워크’	
	내용	발제	● 박승현(화성시 문화자치 총괄기획가)	
		워크숍	● 화성시 문화자치 기금조성 액션플랜 방안	
	일시 및 장소		11월 16일(목) 3시 /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창립 포럼	제 목		화성시 ESG메세나도시 포럼	
	내용	네트워크 창립총회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창립총회	
		네트워크 창립식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창립선언	
		학술 심포지엄	● 김효근(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종합토론 : 화성시 ESG메세나도시 방향	
	일시 및 장소		12월 6일(수) 4시 / 화성상공회의소	

별첨 3

<화성시ESG메세나도시포럼> 회칙(안)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화성시ESG메세나도시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포럼의 주된 사무소는 화성시에 둔다.

제3조(목적) 포럼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ESG) 및 메세나(Mecenat)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상생(Win-Win)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ESG메세나도시의 창조에 기여한다.

제4조(사업) 포럼은 ESG와 메세나에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 조사, 연구, 교육, 발간, 강좌 및 프로그램운영, 평가와 모니터링 및 ESG메세나도시를 창조하는 제반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5조(회원)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는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기업, 시민단체, 학계, 정부기관 등으로 가입신청서 제출과 회비를 납부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6조(의결기구 및 집행기구) 포럼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두고, 사무국 및 각급 위원회, 각급 집행부를 집행기구로 둘 수 있다.

제7조(총회) 총회는 포럼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 지위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사항

-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② 임원의 선출과 해임
- ③ 조직의 해산 및 합병
- ④ 세입세출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 ⑤ 감사보고 처리와 관련한 사항
- ⑥ 기타 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의장이 부의한 사항
- ⑦ 이외 사항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총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임대표가 소집하여 개최하고,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나 이사회의 의결 혹은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8조(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와 공동대표(상임대표 포함)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회무 및 의결을 담당한다.

1. 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포럼의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집행 및 의안

- ③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회원의 제명, 후원회원, 고문, 자문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
-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⑥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의 선출
- ⑦ 기타 포럼 운영 및 회무 집행에 관하여 상임대표가 부의한 사항
- ⑧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성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를 기준으로 상,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1/2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의 요청, 기타의 사유로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회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위임 회무에 대한 의결 및 집행의 역할을 담당한다.
- 3. 기타 회무를 운영위원장에 위임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세부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0조(각급위원회 및 집행부) 포럼은 회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담당 업무별로 다양한 각급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구성)

- 1. 공동대표를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그 중 1인을 상임대표로 한다.
- 2. 이사는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로 한다.
- 4. 이사 중 운영위원장 1인을 둔다.

제12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 1. 포럼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3. 운영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5. 임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직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1. 공동대표는 포럼을 대표하며, 상임대표가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 3. 감사는 포럼의 재정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집행을 감시한다.
- 4. 운영위원장은 각급위원회의 업무 및 사무국을 포함한 포럼의 실무를 총괄한다.

제14조(회칙의 해석) 회칙의 해석은 이사회에서 하고, 명기되지 아니한 것은 통상례에 따른다.

<화성시ESG메세나도시포럼>
주요 개념(안)

**ESG 경영에 메세나가
필요한 10가지 이유**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0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 26000)’을 발표하여 ‘ESG 지표’의 기본방향이 됨
- 2021년 한국 산업표준심의회는 ‘KS A ISO 26000’을 발표하여 ‘한국 기업의 ESG 기본방향’을 제시함
- <ESG+메세나>는 ‘KS A ISO 26000’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책임의 핵심주제’를 구현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됨

01. 메세나는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인식을 고취시킨다.
02. 메세나는 ESG 실현 노력에 대한 공감을 확대한다.
03. 메세나는 이해관계자 소통과 나눔에 도움을 준다.
04. 메세나는 노동과 삶의 균형 보장에 기여한다.
05. 메세나는 근로자 인권 증진 및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준다.
06. 메세나는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07. 메세나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이익을 증대시킨다.
08. 메세나는 공급망 협력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09. 메세나는 시민 에너지를 독려한다.
10. 메세나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사회책임 이행에 협력한다.



예술을 통한 공동체의 인식 고취

-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술 그 자체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술 본연의 인지적 가치와 예술행동은 우리 공동체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친환경 실현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2

ESG 실현 노력에 대한 공감 확대

- 예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창의성과 심미성을 활용한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존 추구에 대한 대중의 공감을 높입니다. 메세나활동은 지역사회와의 감성나눔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ESG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 정서적 호의와 지지를 얻도록 돕습니다.

3

이해관계자 소통과 나눔

-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문화적 소통을 가능케 하며, 문화나눔을 통해 소득·세대·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동체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비차별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노동과 삶의 균형 보장

- 문화예술은 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키고 여가친화적 문화가 스며들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함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메세나가구인AFA(American For the Arts)는 예술이 노동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근로자 인권 증진 및 만족도 영향

- 포춘이 선정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리스트'는 직원 응답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문화예술은 직원 만족도를 높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기업신뢰도, 존중, 자부심, 동료애 등에 관한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에서 직원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6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 구리 제련소의 폐기물로 인해 황폐화 되었던 일본의 나오시마섬은 베네세그룹의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관을 갖춘 문화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들이 떠났던 어촌 마을은 지역 재건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통해 자연과 예술이 조화된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메세나활동은 공동체의 문화적 재생과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기업 가치 향상과 주주 이익 증대

-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일과 같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정신활동이며, 예술이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개인의 윤리성, 관계 건전성에도 연관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로 가꾸는 기업문화는 개개인의 윤리적 성숙을 통해 평판 위험, 인적 위험 등의 비재무 위험에도 대응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급망 협력 기회 창출

-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이슈를 내포한 예술 콘텐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메세나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쌓은 차별화된 신뢰는 ESG 시대에 새로운 공급망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시민 에너지 독려

- ESG 경영환경에서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민들의 힘은 대단히 큼니다. 기업의 ESG 활동에 예술의 메시지 생산력과 아이디어가 결합되면 환경·사회 등급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시민 에너지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의 파이를 키워 미래의 수익 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사회책임 이행

- 밀레니얼 세대는 기업의 사회 기여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에게 메세나활동은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가치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지원 활동은 미래 자산인 4C(Creative,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를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수단입니다.

<화성시ESG메세나도시포럼>
조직도(안)



제 3 장. 화성ESG메세나(준)와 ESG메세나도시

2. 화성ESG메세나의 7대 사업

2023 경기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화성ESG메세나’ 준비위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23. 10. 11 (수) 오후 4시 / 화성시민대학 203호

● 참 석

송인현(민들레연극마을 예술감독), 박석윤(창문아트센터 센터장),
김미자(화성미협 협회장), 이효정(전 화성시 소장인 정책자문관),
임승관(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이미림(브랜드숲 이사)
박승현(‘2023 화성시 문화자치’ 총괄기획가)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정책기획팀(유영임 팀장, 조용성 대리)

● 안 건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준비위 1차 회의록’ 회람 및 검토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준비위 1차 회의록’(별첨 1)
- ‘화성ESG메세나’ 추진 방안 검토
 - ‘<화성ESG메세나> 추진 방안(안)’(별첨 2)
 - ‘<화성ESG메세나> 정관(안)’(별첨 3)
 - ‘<화성ESG메세나> 사업(안)’(별첨 4)

● 진 행

개회	4:00-4:05	참석자 인사나눔	
경과공유	4:05-4:10	2023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화성시문화재단
발제	4:10-4:30	‘화성ESG메세나’ 추진 방안(안)	박승현
안건협의	4:30-6:00	안건 의제	참석자 전원

별첨 1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1차 회의록 >

▶ ‘화성시 메세나 모임 3차 회의록’ 회람 및 검토

– 이견 없음

▶ 발제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 추진방안(안)’ 참조

▶ 안건 논의 사항(쟁점 및 토론 결과의 정리)

–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의 정식 명칭을 확정하고 추진하자.

→ 명칭을 먼저 확정해야 준비위의 추진에 동력이 붙고, 명확한 의미를 홍보할 수 있어서 우선적인 의제로 보인다. 현재 ‘안’으로 올라온 ‘화성시ESG메세나도시포럼’은 의미를 많이 담으려 했으나 너무 길고 설명이 복잡하다. 조직의 명칭은 간결하고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는 것이 좋다. ‘화성ESG메세나’가 좋다. 그동안 많은 논의 속에서 ‘ESG’와 ‘메세나’는 우리의 목표점으로 정확히 부각될 필요가 있다. 오늘 이후로 ‘화성시 메세나 네트워크’(가칭)의 정식 명칭을 ‘화성ESG메세나’로 확정한다.

– 화성ESG메세나의 조직 형태는 어떤 것으로 언제 결정할 것인가?

→ 조직의 형태는 급한 것이 아니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도 늦지 않고, 조직형태의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하면 된다. 참고로, 조직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으로 나뉜다. 영리조직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고 비영리조직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으로보는 단체, 비영리단체 등이다.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형태로 협동조합이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수익금 배분을 하니 영리적 성격을 담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영리 성격이다. 화성ESG메세나는 당연히 비영리조직이고, 향후 논의를 더 해나가자.

– 화성ESG메세나의 ‘회칙’은 창립대회 전까지 다듬어 가되, 우선 목적을 보완하자.

→ 제출된 ‘회칙(안)’은 일반적인 조직이 채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대체로 무난하다. 다만, ‘제3조(목적)’이 중요한데, 너무 압축적이다. 목적은 우리 조직의 나아갈 방향을 정관(회칙)이라는 조직의 최고 운영규정 문서에 보다 풍부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창립대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보완하자.

– 화성ESG메세나의 조직구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 조직의 회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느 한 조직 구성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화성ESG메세나는 다양한 시민 부문과 기업 등 구성원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 준비위원회에서부터도 기업의 참여가 과제다. 기업이 그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적극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화성ESG메세나 조직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화성ESG메세나는 매개하고 실천하는 조직이다. 자칫 ‘지원하는 조직’으로 오인될 경우, 뭔가 이 조직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는 사람들만 몰려올 수 있고,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땐 불만의 목소리만 커질 것이다. 즉, 처음부터 이 조직은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며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으로 위상과 역할을 정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과 기업을 매개하는 역할은 지역에서 새로운 창조적 시도를 적극 펼쳐야 할 것이다. <ESG+메세나>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실천적 성과를 만드는 ‘화성시 모델’이 나온다면, 전국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문화예술이 어떤 역할과 방식으로 기업과 결합할 것인가?

→ 기업과의 결합을 위해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쉽지 않다. 여전히 개별적인 사례 또는 성과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통용되는 방식은 아직 사회적으로 전혀 정착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화성ESG메세나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져야 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돌파구가 매우 구체적으로 지역의 어떤 기업과 어떤 예술가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성과가 나왔다는 것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쌓여나갈 때 결국 그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예술가들의 특성별로, 다양한 예술 방식으로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화성ESG메세나가 그 실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화성ESG메세나 조직 내에서 구체적 실천을 추진하는 방식은?

→ 우선, 조직도(안)에서 제안된 ‘위원회’ 실천단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결국 지역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과제가 곧 ‘위원회’의 실천요소가 될 것인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고자 하는 분들이 적합한 위원회에 함께 하면서 실천적인 작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조직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애초부터 7년 정도의 긴 흐름으로 보자며 이 일을 시작했다. 다행히 경기도와 화성시의 문화자치 사업으로 3년은 확보를 한 셈이어서 보다 내실있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다. 하지만 올해의 출발에서 조직의 기초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민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화성ESG메세나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체 형성의 과제라 할 수 있어서 적극적인 올해의 시도가 필요하다. 3년을 승인한 경기도와 화성시도 1년 마다의 평가를 통해서 3년 지원을 철회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관점은 다른 측면에서 행정 중심의 성과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화성ESG메세나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화성ESG메세나’ 추진 방안(안) >

<화성ESG메세나 포럼> 전체 개요				
● 기금조성 현장실천 교육훈련 총괄 : 임승관(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 기금조성 현장실천 교육훈련 개발 : 이미림(브랜드숲 이사)				
제 목		개 요		
‘화성ESG메세나’ 창립을 위한 1차 워크숍	제 목		화성시 <ESG+메세나> 방안	
	내용	발제	● 손예령(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연구교수)	
		워크숍	● ESG 시대, 기업시민과 문화예술	
	일시 및 장소		10월 4일(수) 3시 / 장소 : 유앤아이센터	
‘화성ESG메세나’ 창립을 위한 2차 워크숍	제 목		<ESG+메세나>와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내용	발제	● 강충호(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워크숍	● 화성시 ESG메세나도시 창출 방안	
	일시 및 장소		10월 26일(목) 3시 / 장소 :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ESG메세나’ 창립을 위한 3차 워크숍	제 목		‘ESG메세나도시’와 ‘문화자치 기금 네트워크’	
	내용	발제	● 박승현(화성시 문화자치 총괄기획가)	
		워크숍	● 화성시 문화자치 기금조성 액션플랜 방안	
	일시 및 장소		11월 16일(목) 3시 / 장소 :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ESG메세나’ 창립 포럼	제 목		화성ESG메세나 포럼	
	내용	네트워크 창립총회	● ‘화성ESG메세나’ 창립총회	
		네트워크 창립식	● ‘화성ESG메세나’ 창립선언	
		학술 심포지엄	●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종합토론 : 화성시 ESG메세나도시 방향	
	일시 및 장소		12월 6일(수) 4시 / 장소 : 화성상공회의소	

별첨 3

<화성ESG메세나> 정관(안)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화성ESG메세나’(영문표기 Hwaseong ESG Mecenat)라 한다.

제2조(소재지) 화성ESG메세나의 주된 사무소는 화성시에 둔다.

제3조(목적) 화성ESG메세나는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이 발현되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의 고양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ESG) 및 메세나(Mecenat)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상생(Win-Win)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ESG메세나도시의 창조에 기여한다.

제4조(사업) 화성ESG메세나는 ESG와 메세나에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 조사, 연구, 교육, 발간, 강좌 및 프로그램운영, 평가와 모니터링 및 ESG메세나도시를 창조하는 제반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5조(회원) 화성ESG메세나의 목적에 동의하는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기업, 시민단체, 학계, 정부기관 등으로 가입신청서 제출과 회비를 납부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6조(의결기구 및 집행기구) 화성ESG메세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두고, 사무국 및 각급 위원회, 각급 집행부를 집행기구로 둘 수 있다.

제7조(총회) 총회는 화성ESG메세나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 지위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사항

-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② 임원의 선출과 해임
- ③ 조직의 해산 및 합병
- ④ 세입세출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 ⑤ 감사보고 처리와 관련한 사항
- ⑥ 기타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의장이 부의한 사항
- ⑦ 이외 사안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총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임대표가 소집하여 개최하고,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나 이사회의 의결 혹은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8조(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와 공동대표(상임대표 포함)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회무 및 의결을 담당한다.

1. 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조직의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집행 및 의안
- ③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회원의 제명, 후원회원, 고문, 자문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
-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⑥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의 선출
- ⑦ 기타 조직의 운영 및 회무 집행에 관하여 상임대표가 부의한 사항
- ⑧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성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를 기준으로 상,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1/2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의 요청, 기타의 사유로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회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위임 회무에 대한 의결 및 집행을 역할을 담당한다.
3. 기타 회무를 운영위원장에 위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세부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0조(각급위원회 및 집행부) 화성ESG메세나는 회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담당 업무별로 다양한 각급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구성)

1. 공동대표를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그 중 1인을 상임대표로 한다.
2. 이사는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로 한다.
4. 이사 중 운영위원장 1인을 둔다.

제12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화성ESG메세나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3. 운영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임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직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는 화성ESG메세나를 대표하며, 상임대표가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3. 감사는 조직의 재정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
4. 운영위원장은 각급위원회의 업무 및 사무국을 포함한 화성ESG메세나의 실무를 총괄한다.

제14조(회칙의 해석) 회칙의 해석은 이사회에서 하고, 명기되지 아니한 것은 통상례에 따른다.

<화성ESG메세나> 사업(안)

- 1 '화성 메세나 아트페어'를 통한 문화자치 기금 조성
- 2 '화성랩소디' 등 크라우드 펀딩과 문화자치 기금 조성
- 3 기업과 예술의 만남, Matching-Grant 사업
- 4 ESG 경영과 메세나를 결합한 '기업+예술 파트너십'
- 5 청년을 위한 '아트화성 펠로우십 임팩트'
- 6 문화예술 공간 자립지원 기금 [공간자립기금 추진]
- 7 화성 메세나 대회 [메세나대상 시상식]

제 3 장. 화성ESG메세나(준)와 ESG메세나도시

3. <ESG+메세나>와 지역사회 발전

